

호르무즈 마비에 LNG 변수... K-조선, 단기적 영향 제한적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20% 통과 LNG운반선 용선료 하루새 40% ↑ 장기화면 수주흐름에 영향 가능성 일각서 해양플랜트 긍정적 분석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커졌지만 국내 조선업에 미치는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대체 조달 과정에서 운송거리(톤마일)가 늘어 액화천연가스(LNG)선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반면, 카타르 LNG 프로젝트 차질로 발주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돼 LNG선 수주 흐름은 여전히 예측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4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격화되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공격하면서 중동 해상 운송 시장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와 대량의 LNG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해 중인 대형 컨테이너선과 선박의 모습. /뉴시스

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선주는 안전 위험을 이유로 운항을 중단하는 등 선박 운항이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분위기다. 이 여파로 LNG 운반선 용선료도 지난 2일 하루에만 40% 이상 급등했다. 이란의 공격은 카타르 북부 라스라판 LNG 생산시설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

최대 LNG 수출국 중 하나인 카타르의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LNG 운송 시장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해운 시장의 혼란이 국내 조선업계에 곧바로 유의미한 영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최근 전쟁 양상은 과거처럼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고, LNG 프

젝트는 대규모 장기 사업으로 단기간에 중단되거나 새로 추진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LNG 조달 경로 변화가 수주 흐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동 공급 차질이 이어지면 미국과 호주 등 다른 지역에서 LNG 생산이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달 지역이 중동에서 원거리로 이동하면 운송거리(톤마일)가 늘어나고, 같은 물량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선박도 증가해 LNG 운반선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LNG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 조선사의 LNG선 수주가 증가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카타르 LNG 프로젝트 자체가 지연될 경우 예정된 발주가 보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급망 재편 여부와 정책 대응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LNG선 발주 확대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원유 운반선 발주 전망도 엇갈린다.

해상 운임 상승으로 해운사 수익성이 개선될 경우 발주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탄소중립 정책 강화로 장기적인 석유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신규 발주가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도 동시에 나온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해양플랜트 시장에는 현 상황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유가 상승으로 해양 유전 개발의 경제성이 개선될 경우 그동안 미뤄졌던 해양플랜트 프로젝트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75달러 이상을 유지할 경우 해양 개발 재개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현규 국립해양조사원 선임연구원 교수는 “에너지 프로젝트는 대부분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사건으로 곧바로 신규 사업이 시작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로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metro

국내 대기업, 중동서 140개 법인 운영... 삼성 28곳으로 최다

92개사, 중동 10개국에 법인 세워 아랍에미리트 56개, 사우디 38개 삼성전자 “임직원 안전 확보 최우선”

중동 지역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 집단의 법인이 14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이 28개를 운영하며 가장 많은 현지 법인을 둔 것으로 조사됐다. 각 사들은 현지 상황이 긴박해짐에 따라 현지 임직원 안전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을 펴고 있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4일 내놓은 ‘92개 국내 대기업 집단의 중동 국가 해외법인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 기업집단들은 중동 10개국에 총 140개 법인을 두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기준 전체 해외법인 6263개 중 2.2% 규모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아랍에미리트에 56개로 가장 많았다. 삼성이 10개로 최다였고, LG(7개)와 현대차(6개)도 5개 이상의 법인이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38개 법인을 해외계열사로 뒤 중동 국가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았다. 삼성이 6개 법인을 배치했다. 오만(12개)과 이집트(11개)에 해외 법인이 있었다. 이어 이스라엘(8개), 요르단-이란(각 4개), 키프로스(3개), 바레인-쿠웨이트(각 2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미국의 공격을 직접적으로 받은 이란에는 SK·현대차·중흥건설·KT&G 그룹도 각각 1개씩 총 4개 법인을 운영 중이다. 이란 소재 법인 중 2개는 건설업 관련 회사이고, 무역과 담배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있다.

그룹별로는 삼성이 28개로 가장 많이 전진 배치했다. 아랍에미리트에 10개 법인을 운영 중이고, 이어 사우디아라비아(6개)와 이스라엘(5개) 순으로 법인을 많이 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지 임직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일부 인력은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사업에서 중동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란과 이스라엘에 근무 중이던 직원들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이집트, 요르단 등 인근 국가로 대피시켰다. UAE, 카타르, 이라크 지역 직원들은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요

르단의 경우 정상 근무를 유지하고 있다.

현대차·LG·GS 3개 그룹은 각각 14개의 해외법인을 중동에 뒀다. 2023년과 비교하면 LG와 GS 그룹은 1~2개 정도 늘었으나, 현대차 그룹은 6개 더 많았다.

LG는 아랍에미리트에만 7개 법인을 세웠고, 사우디아라비아(3개)와 이집트(2개)에도 각각 2개의 해외법인을 뒀다.

GS 그룹도 14개의 해외법인을 중동에 둔 것으로 확인됐다. GS는 오만 국가에만 8개 해외계열사를 두고 있는데, 모두 건설 관련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랍에미리트(4개)와 사우디아라비아(2개)에 세운 법인도 건설·부동산 업종에 해당했다.

이외에도 ▲CJ 그룹(8개) ▲한화 그룹(7개) ▲SK·KCC 그룹(각 5개) ▲중흥건

설(4개) ▲DL·HD 현대·OCI·고려에이치·엘엑스·오케이·금융·한국엔컴퍼니·호반건설 그룹(각 3개)이 뒤를 이었다.

이어 ▲두산·LS·세아·넥슨 그룹(각 2개) ▲HMM·KT&G·글로벌세아·네이버·넷마블·롯데·아모레퍼시픽·카카오·포스코(각 1개) 순으로 중동 국가에 해외 계열사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원유 수급 차질이 현실화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류비 부담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 유동성 관리와 상황에 맞는 리스크 대응 체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中 테크기업, 로봇·모듈폰 등 하드웨어 혁신 경쟁

MWC26

아니, 로봇 팔 카메라 탑재 로봇폰 샤오미-라이카, 테크노 등 두각

애지봇, 지능형 로봇으로 노동 대체 차이나모바일, 초저지연 기술-AI 결합

인공지능(AI) 경쟁의 무게중심이 소프트웨어에서 ‘물리적 기술’로 이동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6’에서는 중국 테크 기업들이 카메라 구조를 바꾸거나 로봇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기기들을 대거 공개하며 하드웨어 혁신 경쟁의 전면이 나섰다.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정체 속에서 단순한 AI 기능 추가를 넘어 실제 기기의 구조와 물리적 능력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차세대 기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지난 2일(현지시간)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6에 참가한 중국 테크 기업들이 대거 하드웨어와 로보틱스를 결합한 기술력을 선보였다. 중국 제조사들은 AI 스마트폰의 성장에 정체를 걱정하며 카메라 모듈의 물리적 구조를 변경하거나 디스플레이 혁신에 집중했다.

가장 과격적인 혁신을 선보인 곳은 아니다. 아너는 기기 후면에 3축 집벌 형태의 로봇 팔 카메라를 탑재한 로봇폰을 공개했다.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카메라가 최대 180도 회전하며 피사체를 물리적으로 추적하고, AI 에이전트로서 사용자와 정서적 교감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과거 애플을 모방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혁신 레도에 올랐음을 증명하는 아너는 올해 하반기 중국 시장에 이

제품을 공식 출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스마트폰의 이미징 기능을 극대화하려는 시도 역시 두드러졌다. 샤오미는 라이카와 공동 개발한 ‘라이즈폰’과 ‘17 울트라’를 선보이며 실제 카메라의 조작감을 재현한 포토그래프 키트를 액세서리로 내놓았다.

테크노 역시 자성 기반으로 망원 렌즈나 액션 카메라 등 다양한 모듈을 탈부착할 수 있는 초박형 모듈형 폰을 전시하며 하드웨어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단순 소프트웨어 보정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렌즈 교환식 카메라와 같은 실제적인 촬영 경험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려는 전략적 변화로 해석된다.

전시장 전반을 관통한 또 다른 핵심 테마는 지능형 로봇이 노동을 대신하는 ‘메탈 칼라’ 시대의 도래였다.

휴머노이드 로봇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인 애지봇은 미래 공학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아너가 선보인 로봇 팔 카메라 탑재 휴대폰. /아너

환경을 가정한 시연에서 복잡한 동작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공항 안내나 물류 지원 로봇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아너 역시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하며 스마트폰 제조 역량을 로보틱스 생태계로 확장하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러한 로봇들은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인간과 소통하고 실생활의 물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통신 네트워크와 로봇 기술의 결합도 구체화되었다.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



애지봇의 휴머노이드 ‘익스피디션 A2’의 모습. /애지봇

나모바일은 5G-A 네트워크의 초저지연 기술과 AI가 결합된 로봇 식당을 운영하며 요리부터 서빙, 결제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자동화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화웨이는 AI 로봇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강력한 대역폭과 초저지연 통신 환경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통신 기술의 패러다임이 인간 중심에서 피지컬 AI 중심의 연결로 전

환되고 있음을 선언했다. /김서현 기자 seoh@



metro